

제66차 총회 2회 임시임원회

총회순서자 및 일정 등 최종 점검

총회주일 헌금도 당부

교단 제66차 총회 2회 임시임원회가 지난 5월 8일 (화) 오전 1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정기 지방회를 마치고 지방회 임원선출 후 임원선출과정에서 의견이 달라 회원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회 안정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겸 기성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운영하 목사의 기도, 총회장 김영인 목사의 설교, 설교자의 축도로 마친 후 곧바로 총회장 김영인 목사 주재로 회의에 들어갔다.

서기 차흥식 목사의 회원점명 후 총무보고에서 총무 겸기성 목사는 교단 임무보고로 두 곳 지방회에서 임시지방회를 갖고 문제를 보완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조율했음을 보고하고, 교단 재무 박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운영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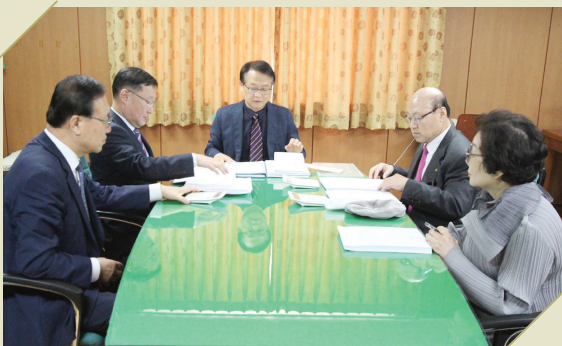


결의 및 안전도의 사항으로 교회가입 청원, 교역자가입 청원, 교역자전출입 청원 등을 보고하고 결의했다.

또한 5월 21일 (월) 개최되는 제67차 정기총회 일정과 순서자 등을 일일이 점검하고 준비에 만전을 기

하기로 했으며 2018년도 총회주일을 5월 20일 시행하고 교회 형편에 따라 총회주일 헌금을 총회로 입금할 것을 당부하고 감사위원회와 예산위원회 모임, 미지리교회 지원신청,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 등의 내용을 총회원들에게 알릴 것을 결의했다.

포토뉴스



교단 감사위원회위원장 김병국 목사·사진 좌측)모임이 67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5월 10일(목) 오전 10시 30분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총회 한 회기동안 각종 총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각종 서류와 영수증 등이 잘 준비되었음을 확인했다. 교단 예산위원회위원장 김윤용 목사모임이 67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5월 10일(목) 오후 1시 총회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67차 총회 각종 상회를 점검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제67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 공고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7차 총회 임원 입후보자들
교단 헌법 제84조와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장 후보



임웅재 목사
산정리순복음교회

부총회장 후보



임기설 목사
은혜와찬양교회

총무 후보



신재영 목사
새김천교회

서기 후보



이경진 목사
다사랑교회

재무 후보



이은승 목사
은혜와승리교회

회계 후보



조병희 목사
기장순복음교회

2018년 4월 10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목사 김인찬
서기 목사 정의섭

푸르초장은 마음의 시냇물

‘치매 예방’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서경에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문제뿐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문제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의 예방과 치유에 대하여 현대의 학이 말하는 지식과 더불어 성경이 교훈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의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치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노인성 질환으로 여겨던 치매가 30~40대를 기습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술로 인한 알코올성 치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 치매예방법을 통해 젊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치매 증상이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지능력이 저하됩니다. 기억력,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 분별력, 계산 능력, 언어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또한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무관심하게 되고, 감정 기복이 심하게 되고, 망상을 하게 되고, 환각 증세와 심한 우울증세와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발병하면 완치가 어렵고 뇌세포 파괴 등 뇌 손상으로 인한 기억장애로 일상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 성격장애, 인격장애, 신체적 이상행동 등이 수반되기에 조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금연, 금주해야 합니다. 흡연을 하면 인지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성경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고전 6:19)고 하였습니다. 흡연은 하나님의 전 안에 유독가스를 넣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음주를 자주 하면 뇌에 있는 기억회로에 손상을 입히게 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엢 5:18)고 하였습니다.

둘째, 비만을 조절하고 저지방 식사를 해야 합니다. 지방 과다섭취는 혈관에 해로운 작용을 하여 혈류에 지장이 초래됩니다. 성경에는 짐승의 고기에서 피와 기름을 제거하고 먹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은혜와진리교회)

셋째, 꾸준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면 몸의 활동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옛 시대에는 일하는 것으로 충분한 운동량을 얻을 수 있었기에 성경에는 일하기를 권장하면서 일을 통한 운동효과를 얻게 하였습니다.

넷째,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거나 안 받는 사람들에 비해 5년의 기간 동안 치매로 발전될 확률이 2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명상이나 산책,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하였습니다. 이는 가장 탁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일 뿐 아니라 스트레스 예방 방법도 됩니다.

다섯째, 참된 보람과 의미를 갖는 일을 해야 합니다. 사는 것이 허무하고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면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우울증은 치매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 15:58) 하였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목민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여섯째, 마음을 맑게 가져야 합니다. 불신, 절망, 미움, 원망, 시기과 질투는 몸의 모든 기능을 교란시키고 호르몬 분비가 비정상적이 되게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잠 4:23) 하였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는 생각은 믿음, 소망, 사랑의 생각입니다.

일곱째, 두뇌와 손을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 최상의 방법은 성경을 소리 내어 읽는 것과 설교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성경구절을 암송하고 손바닥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는 성도가 얻게 되는 유익이 참으로 많습니다.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8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행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ASSEMBLIES OF GOD

한기총·한교총 등과 통합논의

한기연 제7-3차 임원회, 통합추진 위원 5명 인준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은 지난 4월 19일(목) 제7-3차 임원회를 열고 통합추진위원 5명을 인준했다.

한기연은 지난 임원회에서 한기총, 한교총 등 연합기관과의 통합을 전담할 통추위원 선정을 대표회장과 상임회장에게 위임하고 임원회에서 추진토록 결의한 바 있다.

이날 임원회에서 인준한 통추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권태진 목사(상임회장) △위원장 정서영 목사(직전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통합), 송태섭 목사(고려개혁), 김효종 목사(호헌) 임원회는 이들 통추위원들에게 통합 추진의 전권을 부여하되 최종 결정에 앞서 대표회장에게 보고토록 했으며, 대표회장은 이를 중재대표회장단과 상의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통추위는 앞으로 한기총, 한교총 등과의 통합문제를 전담해 추진하고 통합이 현실적



으로 어려운 경우 교단 및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활동해 나가기로 의결을 모았다.

한기연은 임원과 사무처 직원 전체가 참가하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준비를 대표회장과 사무총장에게 위임했다.

사무총장 최귀수 박사는 한기연 현안과 사무처 경과를 보고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

아 3일(목)에 있을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꿈나무 '사랑의 나눔' 행사와 7일(월) 서울역 노숙인을 위한 사랑의 나눔행사 등 예정사업을 보고했다.

48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에 앞서 드린 예배는 김효종 목사(호헌 총회장)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담후 4:5 말씀을 전했다.

한기보협 제6회 미스바기도회 개최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주제 특강도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한홍교 목사)는 지난 4월 24일 동 협의회 대강당에서 제6회 미스바 회개기도회 및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한홍교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정부가 들어와서 헌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으로 인해 시끄럽다. 이 정부의 정책이 사회주의의 국가적인 모습이 보여 염려했는데 결국 현실화 됐다. 정부의 모습을 보면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 엄정

한 불이익을 주는 탄압을 하는 인상을 받기도 한다.”며, “현 정부가 반 기독교적 움직임을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 일을 생명 걸고 막아야 한다. 그래야 이 민족이 구원받고 복음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 대표회장은 또 “우리 형편에 맞지 않는 연방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또 동성애 문제를 맡을 교묘하게 바뀌어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결단코 바뀌어 한다. 기도로 나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1200만

기독교인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성경을 바로 아는 ‘필사운동’이 절실하다. 이러한 운동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신학위원장 김주상 목사의 개회선언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 법제화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란 주제로 최대권 박사(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한동대 석좌교수)의 특강이 이어 특별기도로 이어졌다.

상임회장 신한철 목사가 미스바 회개기도회를 위하여, 예정함동제일교회 김정우 목사가 ‘세계선교를 위하여, 예정제지총회 김성립 목사가 ‘월별 지방선교와 헌법개정 대책을 위하여, 예정함동보수총회 이정희 목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위하여, 예정호헌총회 오동환 목사가 기업인들과 노사안정을 위하여, 예정에복총회 이선한 목사가 ‘한국교회와 한기보협을 위하여, 예정보수연합총회 이경희 목사가 ‘동성애 반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한 후 기독교대한자 유감리회 이의근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세기총-복음의전함, 상호업무교류 협약식

양 기관, 복음 전파사역에 적극 협력기로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이하 세기총)와 (사)복음의전함(이사장 고정민 장모)은 지난 4월 25일 오후 3시, 세기총 사무실에서 상호협력력을 통하여 선교 활성화를 도모하며 상호발전과 기독교의 복음을 전함에 함께 기여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상호교류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 기관은 복음전파에 대한 상호 교류 협력의 신의와 성실로 하며 제 규정을 존중하면서 세기총은 (사)복음의전함이 진행하는 국내외 전도 캠페인에 많은 교회와 선교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사)복음의전함도 세기총이 진행하는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은 세기총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인사말에서 세기총 대표회



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함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단체와 협약을 맺음에 감사를 표하면서 두 단체가 목적이 같다는 의미에서 서로 잘 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사)복음의전함 이사장 고정민 장

모는 귀한 축복의 자리가 됨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세기총과 함께 손을 잡고 겸손한 마음으로 심부름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동역하는 단체가 될 것임을 말했다. 이어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협약서를 교환한 후 기념촬영을 했다.

“주님께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5월 6일 주일, 3교회 성도 404명 장기기증 서약



지난 5월 6일 장기기증을 약속하는 생명나눔예배가 전국 3개 교회에서 드려졌다. 부

전에 위치한 복된교회(담임목사 박만호)에서 는 교회창립 43주년을 기념해 생명나눔예

배를 드렸다.

복된교회는 본부의 최은식 목사를 초청해 장기기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만호 담임목사는 “찬송가 9월 말인가

날 위해의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바칩니다'라는 가사처럼 주님께 생명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자”라며 성도들에게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독려했다. 그 결과 복된교회 성도 중 총 211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이날, 총복 음성에 위치한 충청중앙교회(담임목사 김효태)에서도 1, 2부 예배에 황성현 지부장을 초청해 생명나눔예배를 드렸다. 충청중앙교회는 설립 112주년 기념주일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와 함께 생명나눔예배를 진행했다. 김효태 담임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장기기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라고 설교했다.

그 결과 충청중앙교회 성도 250여 명 중 128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실천하며 50% 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구세군, 브릿지교회 카페 테바 오픈

노숙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자활 위한 역할

한국구세군(사령관 김필수)은 지난 5월 9일(수)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에서 브릿지영문교회(회장)를 개영(개회)하며 감사예배를 드렸다.

브릿지영문은 평일에는 노숙인 공동작업장 및 커피 매장 카페 테바(Cafe Tebah)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카페의 공간이 교회가 돼 노숙인의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자활을 돕는 역할을 하며 담임 사관(목사)은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의 이문재 사관이 맡는다.

김필수 사령관은 “이곳 브릿지영문이 하나님을 만나며 인격과 삶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며 노숙인들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의



보호와 일자리 교육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구세군의 복지시설로 '브릿지'라는 단어 자체에도 노숙인을 사회로 다시금 나갈 수 있게 다리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방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카페 테바(Cafe Tebah)는 앞서 1호점이 착한 가게 기빙 트리와 함께 구세군 빌딩에 개점되기도 했다.

백양로교회, 콩고에 1만5천부 불어 성경 기증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백양로교회(김태영 목사)가 콩고민주공화국에 불어 성경 15,126부를 기증한다. 지난 2017년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

으로 르완다에 11,080부의 성경을 기증한 데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성경을 기증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백양로교회에서 이루어진 성경 기증식에서 김태영 목사는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보급되어서 그 곳에 회복과 치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백양로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르완다와 콩고민주공화국에 성경을 보내는 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하였다.

콩고민주공화국성서공회 크리스토퍼 콩고 총무는 이번 성경 기증에 대해 감사하면서, 보내준 성경으로 내전과 폭력으로 크나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성경을 반포하여 치료와 회복을 돕겠다고 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성경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세계한인방송협회(WAKB), 정기총회

신임회장에 김명전 선출, 부회장에 한용길 선임

전 세계 한인 방송인의 상호 연대와 국제 방송 교류를 목표로 2005년 창립된 세계한인방송협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세계한인방송협회(WAKB: Worldwide Association of Korean Broadcasters)는 북미, 남미, 극동, 동남아, 유럽 등 지구촌 17개국에

서 90여 개 방송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WAKB는 2012년 서울 제7차 총회가 무산된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6년이 흐르면서 총회 재건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집행부를 구성해 1년여 재건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 4월 25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기 2년의 새 집행부를 출범시켰다.

총회를 추스르고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할 책임을 맡은 회장으로 GOODTV 김명전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또한 부회장엔 CBS 한용길 사장이 선임됐다.



박용묵 목사 탄생100주년 기념예배

영파 박용묵 목사의 문학세계에 대해 조명

영파선교회(회장 박재현 목사)는 지난 4월 19일 오후 5시 대교회 예배실에서 영파 박용묵 목사 탄생100주년 기념예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전종문 목사(종신문화회 회장) 사회로 김형운 목사(등대교회)의 기도, 박종구 목사(열간목회)의 요4:40-42 말씀을 본문으로 한 “그리스도, 그 건너편”이라는 제목의 설교, 박현식 목사(대교회)의 인사말, 김춘환 목사(서울신학교 학장)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영파 박용묵 목사의 문학세계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홍분표 목사(문학평론가 전 오산대 총장)는 ‘시조시인 박용묵 목사의 문학선교와 임

타령’이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박용묵 목사의 문학선교는 시조에서도 우리의 고유한 표현양식인 시조의 리듬과 정서를 근간으로 하여 말씀을 드러내고자 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가 문학선교의 표현수단을 시조로 한 것은 기독교가 한국 고유의 정서와 감정을 담아 온 민족적인 기라과 결합하

여 한국문화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게 하겠다”는 탁월한 선교전략이었음을 우리는 그의 시조시에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된 순서는 영파선교회 회장인 박재현 목사의 헌시, 영파가족의 특송 후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기지방회 갖고 신임원 선출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조병희 목사)는 지난 4월 9일(월) 정기지방회를 갖고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김태주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한순남 목사의 대표기도, 재무 조은혜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조병희 목사의 록 21:34-36 말씀을 본문으로 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라는 제목의 설교, 회계 서미곤 목사의 헌금기도, 증경회장 한병정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어 정기지방회는 고영권 목사의 기도



와 회장 조병희 목사의 사회로 2부 회부처리와 신임원 선출을 은혜 가운데 처리하고 신임 회장 정기영 목사의 기도로 2부 회부처리를

모두 마치고 세움교회에서 제공한 식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교단 정기 총회 때 만나기로 하고 아쉬운 일정을 마쳤다.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정기영 목사)는 지난 5월 1일(화)~2일(수) 거제에서 봄야유회를 갖고 회원 간에 교제를 나누었다.

첫째 날 산청 한방가족 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지방회장 정기영 목사의 록 8: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지며 풍성한 은혜를 나누었다.

이튿날 아침에는 지리산 일대와 노고단을 둘러보고 점심식사 후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했다.



주재훈 목사·오종임 전도사 선교사파송예배

김포지방회

김포지방회(회장 경창호 목사)는 지난 4월 30일(월) 선교사파송예배를 드리고 생령

의 말씀을 땅 끝까지 전파하고자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을 작정한 주재훈 목사, 오종임 전도사 부부를 격려했다.

이날 파송예배는 총무 이근수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이덕재 목사의 대표기도, 지

방회장 경창호 목사의 설교, 증경회장 박재빈 목사의 권면, 증경회장 이덕재 목사의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경창호 목사는 설교를 통해 땅 끝까지의 복음전파를 위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주재훈 목사, 오종임 전도사 부부의 선교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로 놀라운 복음전파의 열매가 나타나 베트남지역의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했다.

이어 안수위원들의 안수기도로 뜨겁게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었다.

주재훈 목사 부부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오는 15일 출국하여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된다.



창덕궁 및 북촌 산책하며 교제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탁정신 목사)는 지난 5월 1일(화) 부암아트홀 6층에서 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1부 예배는 박웅진 전도사와 이상숙 전도사가 찬양을 인도하고 총무 오세준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이경진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탁정신 목사의 행 13:22-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 서기 육준수 목사의 헌금기도, 박형남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예배 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에서 점심을 하고 창덕궁 및 북촌 일원 관광과 산

책을 하며 야유회 행사를 갖고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오병이어교회 창립감사예배

서울중앙지방회

서울중앙지방회(회장 김덕영 목사) 오병이어교회(담임 김진숙 전도사)는 지난 5월 7일(월) 오병이어교회 창립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이기성 목사의 사회로 증경회장 김상기 목사(사랑과생명교회)의 대표기도, 이기성 목사의 성경봉독, 조광현 목사(선교중앙교회부목사)의 축하 찬양, 지방회장 김덕영 목사의 요 6:1-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설교를 통해 "기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기도를 통해 일어난다"며 "개척하기 힘든 시기에 개척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티테티오스(테티오스)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함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된 자) 요한 하며 부르시고 사명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많은 염려와 근심 중에 눈물 흘려 개척을 준비한 전도사님과 오병이어교회에 티테티오스(Titicos) 함께 하신다"고 전했다.

이어 김덕영 목사의 창립공포, 증경회장 임춘동 목사의 축사, 증경회장 권이옥 목사의 권면, 회계 문경복 목사의 헌금기도, 김진숙 전도사의 취임인사 및 광고 후 회장 김덕영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심재범 산청H회장...청렴코리아 경남 위원장에

산청한방가족호텔 심재범 회장이 지난 5월 2일(수)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경상남도 위원장에 임명되었다.

사단법인 청렴코리아는 소외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차별 없는 자유로운 경쟁을 설립 취지로 청렴 관련 사례 수집·발굴 등 청렴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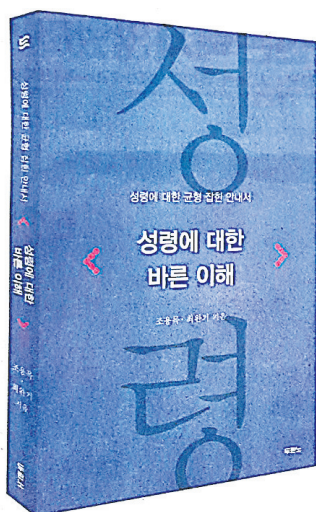
- 대 상 : 결혼 전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④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④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
(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5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5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영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읽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경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 | | | |
|---|--------|---|
| 저 | 조용목 목사 |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 하나님의교회 실행위원이다. |
| 자 | 최완기 목사 |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원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

■ 생명의 말씀 ■



이강익 목사

· (사)대한예수교장로회
총연합회 상임회장
· 대광교회

삼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 선지자가 베들레헴사람 이새의 아들 중 한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삼상 16:5-13) 이에 이새의 아들들이 단장을 하고 사무엘 앞에 섰지만 막내아들 다윗은 그 자리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소년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보기에 별 볼일 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삼상 16:7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도 그 용모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시편 23:1-6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인사조차 시키지 않은 그소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속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어떤 속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영의 사람이자 육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물질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과 같이 환경을 다스리고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해서 만물이 정복되고, 발명되고,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벤전 2:9 말씀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행 13:22 말씀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1.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님이 우리를 찾아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에 딱 맞는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시면서 성령으로 마음에 감동을 주시므로 우리 마음이 감와 감동받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좋으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다윗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2.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나라를 늘 상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고, 꿈이 없는 백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행 2: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꿈이 우리를 이루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꿈을 가슴에 품으면 꿈이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말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창조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 10: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회화를 다니면서도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믿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저짜처럼 작을지라도 믿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불교를 위한 ‘입법 발의’ 또 나타나 일명, ‘공원녹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의원 12명이 발의하다

지난 4월 18일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비롯한 12명(김석기-경북 경주, 이명수-충남 아산갑, 박병우-울산 남구름, 김광립-경북 안동, 정갑윤-울산 중구, 박인숙-서울 송파갑, 박명제-경북 포항남/울릉, 김성찬-경남 창원/진해, 추경호-대구/달성, 김승희-비례대표, 김규환-비례대표, 송희경-비례대표)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117)을 입법 발의하였다.

이 법안에 의하면, 소위 전통사찰을 더 보호받게 해 달라는 취지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원녹지법) 제48조(문화재 등에 특례)에 제3을 신설하고 제1항에서는 “시/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이나 전통사찰 보존지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거처 결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

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새로 넣는다는 것이다.

법률 개정 제안 이유를 보면 ‘전통사찰은 문화재와 달리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 관한 도시/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공간의 혼란이 발생하여 법 적용의 혼란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함’이라고 한다.

현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전통사찰법)에는 불교에 상당한 특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법 제2조(정의)에서는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 제4조에 따른 등록된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제4조에서 규정하는 ‘전통사찰’의 기준은 무엇인가?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가지고 있는 사찰.

2. 한국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려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로 규정하고 있다.

1, 2번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될지 모르나, 3, 4번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사찰들을 계속 ‘전통사찰’로 만들어, 법의 보호를 받고, 국가가 특례를 주려는 것은 그야말로 ‘종교편향’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전통사찰’은 지난 2006년에는 919곳이었는데, 2017년에는 966곳으로 무려 47곳이나 늘어났다. 그런데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국가와 지자체는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각 사찰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교에 특례를 주고 있는 “전통사찰법”에 보면 제8조의2(국가 등의 책무)에서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6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제8조2의 제2항에서 전통사찰의 주지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조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축/철거하는 경우에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해당되는 법률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3조에서는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려는 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여러 가지 법률 조항이 불교의 ‘전통사찰’에 특례와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만들어 운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불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은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교 종단 가운데 A종단은 전체 사찰 2700여 개 가운데 778곳이 ‘전통사찰’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의 28%에 해당하며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번에 일부 의원들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낸 것은 더 분명한 특혜를 불교계에 주려는 것으로 이는 각 종교와 국민들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타당한 것도 아닌 데 이를 입법화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전통사찰보존법은 1987년에 처음 제정되었는데 이는 불교를 보호하고 사찰들에게 특례를 주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관례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식민종교정책’을 위하여 불교를 우대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교분리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특정종교를 진흥하기 위한 정책과 재정지원’으로 정교분리원칙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통사찰법’이나 ‘공원녹지법’은 정책과 재정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정교분리원칙’ 위반은 물론 위헌소지마저 있다고 본다.

이제는 해마다 늘어나는 ‘전통사찰’로 인정하는 기준도 엄격히 해야 하고 문화재 등 중요한 문화재적 유산이 있는 사찰로 한정하는 등 오히려 이 법은 그 선정기준과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공연회 국민감정 자극과 「종교편향」이란 불편함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동 정

CBS 한용길 사장 연임



CBS 기독교방송 한용길 사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한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6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재단법인 CBS 기독교방송(이사장 김근삼 목사)는 지난 4월 30일(월) 오전, 재단이사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장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해 차기 사장으로 한용길 현 사장을 선출했다.

자랑스러운 숭실인상



피어선 통합총회 증경총회장 원종분 목사가 지난 5월 10일(목) 오후 3시 영락교회 본당에서 개최되는 숭실대학교 서울총회 재건기념 감사예배 및 숭실기독교인 비전선포대회에서 10만 동문을 대표해 ‘목회, 교육, 선교, 통일, 사회’ 5개 분야 중 사회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숭실상’을 수상하게 됐다.

나사렛대, 심폐소생술 최우수상



나사렛대학교(총장 임승안) 정바름(방송미디어학과, 4년), 설다을(태권도학과, 4년), 채운호(기독교학부, 3년) 학생이 소방청 주관 ‘제7회 대한민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정바름, 설다을, 채운호 학생은 심폐소생술 퍼포먼스를 선보여 18개 소방팀 가운데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연대 ‘언더우드기념관’ 새 단장



하재로 1년 가까이 방치됐던 연세대학교(총장 김용학) ‘언더우드(家) 기념관’이 개보수 공사를 마친 뒤 새롭게 태어났다. 694㎡(약 210평) 규모의 기념관은 이번에 안팎으로 새 단장됐다. 기념관에는 언더우드 가문의 손길이 닿은 유품 150여 점이 전시돼 있다. 기념관은 월~토요일(공휴일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로 개방된다.

http://agpgs.aogk.org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M.M./Master of Ministry)	2년(4학기)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증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i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전형료 : 50,000 원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M./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 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윤리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자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종교인 소득과 활동비 통장 분리 사용해야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 종교단체 과세 아닌 종교인 과세 강조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와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는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중간점검 및 설명회를 지난 5월 3일 한국기독교교회관 조예홀에서 갖고, 종교인 소득과 활동비 분리 기장정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교회 및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비교세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시됐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8호는 종교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승인 등을 통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급여 및 물품을 말한다. 따라서 종교인은 종교활동비에 대해서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활동비에 대한 통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소득과 활동비를 함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득과 별도의 종교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앞으로 이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교활동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 작은 교회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소득보다도 몇 배의 목회활동비를 책정한 중대형교회에서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 국민들과 교인 대부분이 중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이 소득보다도 몇 배의 종교활동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목회자와 교인 간의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는 그렇지 않아도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목회자들의 신뢰도와 윤리와 도덕성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 같은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목회자는 소득에 대한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종교인의 소득세와 종교활동비를 구분해서 기장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종교인에게 지급된



모든 소득에 대해 세무사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활동비에 대하여 비교세되기 위해서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 또는 소속 종교단체의 의결기구의 의결 등이 있어야 하고,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종교활동비의 금액도 승인에 의하여야 하고, 종교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어야 한다.

한편 종교활동비의 승인이 없거나, 승인된 지급기준이 없거나, 승인된 지급기준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거나, 통상적인 종교활동이 아닌 활동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세에서 제외된다.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종교인 소득계좌와 종교활동비 계좌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이석규 세무사는 강조했다.

또한 사한세 교수는 이 자리에서 종교인들은 세무서에 소득신고 또는 종교인소득신고를 필하면,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종교인소득신고가 근로소득신고보다도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국세청의 관계자는 종교인의 소득신고가 끝나면, 근로장려금을 비롯하여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은행에

서의 신용도가 높아져 금융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이 없다고 해서 한 푼도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주는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서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교인과세 시행을 앞두고, 국세청은 120명의 실무자를 일선 세무서에 배치했다. 또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는 종교단체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종교인과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종교단체의 소득신고는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기별로 실시한다. 현재 종교인 20%가 종교인 과세에 동참하고 있으며, 자진납부는 월별로 150% 증가했다.

한편 한국교회 종교인과세 공동TF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교단장회, 전국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종교인과세 내용을 홍보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한인수 장로의 <막차 탄 동기동창>

극단 호수공원 공연작품 코믹극 시리즈 제1탄!!

극단 호수공원은 **이근삼** 선생의 코믹극 <막차 탄 동기동창>을 오는 5월 19(토)~20일(주일) 고양 아람누리 새라극장에서 공연한다.

연극 한류를 외치며 당당히 영국에든버러 프린지페스티벌에 연극 <드링크>로 참가해 세계적인 작품들과 겨루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던 극단에서 76회 공연으로 이근삼 선생의 코믹연극 <막차 탄 동기동창>을 공연한다. 서로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온 60대의 두 초등학교 동창생이 사사건건 충돌하고 갈등하지만 마침내는 서로 같은 처지라는 연대의식을 느끼고 서로의 존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소외당한 두 동기 동창의 갈등과 시기, 질투를 극복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그렸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유쾌하게 제시하고자 했다.

공연은 미국 유학까지 하고 와서 대학 강사와 출판사 전무를 하다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고 사표를 낸 후 낙향해 혼자 사는 김대부의 집에 초등학교만 졸업한 후 봉제공장을 해 돈을 벌었지만 딸의 집에 없애살버 눈썹



밥을 얻어먹는 신세인 오달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극은 시작된다. 지식인 김대부 역에는 멋쟁이 탤런트 한인수, 초등학교 출신으로 봉제공장으로 돈을 번 오달 역에는 최성웅이 출연해 연기 대결을 벌이며, 두 동창생들을 질투하고 싸움을 하게 하는 역에 윤지영이 출연해 특유의 코믹 연기를 선보인다.

새생명나눔회 강원지회 출범식

강원도 기증인, 이식인 15명 캠페인 펼쳐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이하 본부)는 지난 4월 27일(금)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소재 아인 연회장에서 '새생명나눔회 강원지회' 출범식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 김동엽 사무처장을 비롯한 신장기기증인과 이식인 15명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이 진행됐다.

'새생명나눔회'는 본부를 통해 생존시에 신장을 기증하고 이식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 지난 1991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약 1,900명이 회원으로 소속돼 있다. 그동안 9곳의 지역에서 지회가 출범해 다양한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쳐왔고, 이날 강원지회 출범식으로 10번째 지회가 탄생하게 됐다. 특히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신장기기증인, 이식인 14명은 앞으로 강원지회의 활동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약속했다. 출범식과 함께 강원도에서 본격적인 생명나눔운동을 실행할 임원을 선출하는 시간을 가졌고, 회장에 신장기기증인

박순홍 씨가 선출되었다.

출범식 이후에는 오후 1시 30분부터 1시간 반 동안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장기기증 홍보활동을 펼쳤다.

한편 강원도 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2013년 4,682명, 2014년 3,838명, 2015년 2,530명, 2016년 2,686명, 2017년 1,883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이에 강원도 내의 장기기증 문화를 보다 활성화 시키고자 생명을 나누는 실제 주인공들로 구성된 새생명나눔회 강원지회가 대대적인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다.

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이 땅에 장기기증운동이 시작된 지 벌써 27년이 됐지만 매년 장기기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강원도 내 생명나눔의 열풍이 일으켜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홀트아동복지회-KB손해보험, 미혼한부모가정 영유아 건강한 성장 돕는다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지난 5월 10일(목) 서울 마포구 합정동 본부에서 KB손해보험(대표 이사 사장 양종희)과 함께 미혼한부모가정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기부 협약식 및 사회공헌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지원된 '365 베이비 케어 키트'는 아동의 생명을 365일 건강하게 지킨다는 취지 아래 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의 육아용품을 한데 모은 패키지이다.

KB손해보험은 지난 2014년에 홀트아동복지회와

인연을 맺은 후 꾸준히 미혼한부모가정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역시 이를 위해 7천여 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현재까지 총 3억 원을 후원하게 됐다.

협약 및 기부금 전달식에는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 김성은 홍보대사를 비롯한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행사 이후에는 임직원 봉사단원과 함께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포장 작업을 진행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뿐만 아니라, 행사에 참석한 미혼한부모들이 엄

마의 마음을 담은 자작곡을 불러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은 "올해도 미혼한부모와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돼주신 KB손해보험에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KB손해보험 양종희 사장은 "아동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365 베이비케어 키트 프로그램이 작은 도움과 희망이 됐으면 한다. 내년에도 지속적인 나눔 경영을 통해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함께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영신상조(기독교장례전문)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기독교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내역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 영정꽃 선택,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270만원 2호 370만원 3호 470만원은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틀(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제67차 정기총회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신동민 목사
시연명교회



총무 고관규 목사
사람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김성규 목사
섬종교회



총무 이인연 목사
홍제은혜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이복순 목사
진리와사랑교회



저무 신은순 목사
빈석교회

서울강남지방회



회장 우성연 목사
은혜교회



부회장 정윤기 목사
순복음가락교회



총무 이선근 목사
국악교회



서기 이연희 목사
순복음사랑교회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김강기 목사
성명교회



부회장 임문택 목사
우리들의교회



서기 심은애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김복순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부회장 전혜세 목사
열린복음교회



총무 관비율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서기 조영진 목사
순복음부흥교회



저무 이재봉 목사
순복음비전교회



회계 최규자 목사
순복음은리교회

경기중앙지방회



회장 이은성 목사
은혜와사랑교회



부회장 한상운 목사
순복음성령교회



총무 윤두환 목사
홍선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서기 신근철 목사
순복음예수성교회



저무 한신 목사
반포순복음교회



회계 김현숙 목사
대문순복음교회



회장 신숙순 목사
순복음임마누엘교회



부회장 정미자 목사
성교회



부회장 김남순 목사
혈문산교회



총무 서성연 목사
복된교회



서기 김효신 목사
순복음천강교회



저무 서경오 목사
복있는교회



회계 최정용 목사
순복음만남교회

경기충청지방회



회장 김동문 목사
동선성교회



부회장 이성일 목사
전암교회

인천지방회



총무 최남순 목사
영성순복음교회



저무 백수진 목사
사람의능력교회



회장 이선호 목사
대구은혜와진리교회



부회장 최유연 목사
과천은혜와진리교회



총무 이도희 목사
전원은혜와진리교회



서기 경영식 목사
인양은혜와진리교회



저무 이재형 목사
인천은혜와진리교회



회계 윤형민 목사
광영은혜와진리교회

안산시흥지방회



회장 이만규 목사
아세아(순)교회



총무 김영학 목사
새동산교회



회계 최영희 목사
예준교회



서기 정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경기북지방회



회장 탁정신 목사
온선교회



부회장 이경진 목사
다시평교회



총무 오세준 목사
순복음참종은교회



서기 육준수 목사
형기보은교회

용인지방회



회장 김희문 목사
은혜와소망교회



부회장 김인희 목사
순복음성광교회



총무 지윤희 목사
새사랑교회



저무 김득일 목사
기도하는교회

일산지방회



회장 이진우 목사
주인의교회



부회장 조영란 목사
일산별교회



총무 최정희 목사
빛과성령의교회



서기 정수자 목사
순복음평강교회

김포지방회



회장 경성호 목사
마성순복음교회



총무 이근수 목사
우리순복음교회



저무 최경숙 목사
양곡전원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반인홍 목사
승도순복음교회



부회장 김정근 목사
명성순복음교회



총무 조성진 목사
중민교회



서기 정진국 목사
혈민순복음교회



회계 이한숙 목사
사람순복음교회

강원동지방회



회장 진정길 목사
성자순복음교회



부회장 이성은 목사
진부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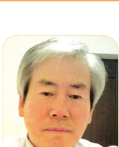


총무 최정희 목사
성광순복음교회



서기 정수자 목사
강북순복음교회

강원서지방회



저무 이종진 목사
주인의요양교회



회계 백규현 목사
완성순복음교회



회장 임병재 목사
순복음만사현교회



부회장 정희자 목사
백교회



총무 이재두 목사
성산은혜교회



서기 서반석 목사
가나안영성교회



회계 김준희 목사
군업순복음교회

대전지방회



회장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부회장 이미선 목사
신소망교회



총무 이만규 목사
좋은나무교회



서기 차재현 목사
열매열매교회

충서지방회



회장 인홍규 목사
한사랑교회



부회장 김영권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총무 이인복 목사
순복음송죽교회



저무 오수경 목사
순복음장지교회

충남지방회



회장 오일선 목사
순복음포도원교회



부회장 김순구 목사
사람이념교회



총무 전홍식 목사
순복음성기교회



서기 윤 옥 목사
성산순복음교회



저무 김영희 목사
순복음장대교회

충주지방회



회장 정원희 목사
효제문교회



총무 정의섭 목사
한소교회



서기 김성호 목사
충주성민교회

충주지방회



회계 김선경 목사
세계로교회



회장 윤병하 목사
한우리교회



총무 이재준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



서기 진현배 목사
성곡순복음교회

충북지방회



회장 오병희 목사
아멘순복음교회



부회장 김경준 목사
후영순복음교회



총무 김 용 목사
새희망교회



서기 신병철 목사
주사랑순복음교회



저무 조재호 목사
창대교회



회계 민병훈 목사
예광순복음교회

경남지방회



회장 윤성수 목사
진주성교회



부회장 권규섭 목사
화목한교회



총무 유영주 목사
열매열매교회



회계 이성진 목사
(순)진주별교회

경남북지방회



회장 이성식 목사
섬입교회



부회장 권정식 목사
순복음들무교회



총무 신홍식 목사
한일미일교회



서기 성기찬 목사
동산순복음교회



저무 윤득주 목사
복음산순복음교회



회계 황종식 목사
안양순복음교회

대구경북지방회



회장 김영준 목사
감실리순복음교회



부회장 도명수 목사
동해안순복음교회

부산지방회



총무 정진환 목사
태전사랑교회



회계 허민은 목사
순복음성산교회



회장 정기경 목사
순복음서림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祝

제67차 정기총회

광주지방회

회장 최창식 목사
순복음복된교회
부회장 이명애 목사
순복음한국교회
총무 조은주 목사
순복음참좋은교회
서기 조길수 목사
은혜교회
재무 백우진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회계 백명애 목사
순복음열린교회

전북지방회

회장 유광영 목사
순복음충주나루교회
총무 최강욱 목사
순복음제일교회
서기 이강호 목사
함리순복음교회
회계 박종석 목사
별墅전원교회

전북서지방회

회장 박상규 목사
정읍순복음중앙교회
1부회장 임경석 목사
은혜성산교회

전라지방회

2부회장 심혜원 목사
임마누엘수양관
총무 양희철 목사
청북순복음교회
서기 김현배 목사
꿈이있는교회
재무·회계 박운석 목사
순복음심원교회

호남지방회

회장 서베드로 목사
목포시내산교회
부회장 정복배 목사
순복음등산교회
총무 현기봉 목사
장계교회
서기 홍희희 목사
예천교회

제주지방회

회계 민순복 목사
새생명교회
회장 김건수 목사
제주한마음교회
총무 이재홍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

총회직속지방회





결혼114 全國支社 및 會員 모집

[저 출산, 고령화 社會의 최대 관심 有望사업]

각 교회 미혼 남, 여 청년들의 결혼이 교회마다 심각한 점과 개척교회의 심각한 교회재정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결혼114와 함께 비즈니스선교와 전도를 위한 전국 지사를 모집하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 신학생 및 교회 중재직분들을 전국지사장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 4차産業革命 정보共有사업

1. SNS, 블로그 제작 支援
2. 매칭 本社 지원
3. 營業 및 商談 지원
4. 收入 年 4,000만원이상
5. 지역獨占 營業권부여
6. 新 사업기회 제공(여행업)

■ 결혼회원 모집

1. 등록비 年 54만원 最低비용
2. 基督教人 회원 多數
3. 전문직, 僑民회원 多數
4. 공무원, 교사, 대기업, 사업
5. 年 3회 결혼미팅파티 招請
6. 全國的 회원 多數

■ 결혼114와 他社의 서비스分析

비교항목 / 구분	서울 중개업체	결혼114	지방 중개업체
일반 회원 가입비(1년)	140만원~600만원	54만원	50만원~150만원
매칭 서비스 (1년)	4회+3회~5회+5회	셀프 매칭 무제한	5회 또는 성혼시까지
성혼사례비	없다	없음	200만원~300만원
특별 서비스(단체 미팅)	없다	년 간 3회이상 결혼미팅파티 초대	없다
콜백서비스	있다	있음	없다
서비스지역	전국	전국	지방(제한적)

☎ 상담전화(전국) 1566-5049

■ 홈페이지: WWW.결혼114.COM

■ 신고번호:대구-중구-국내-2015-0006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모회 제8회 정기총회

| 일시 | 2018년 5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은혜와진리교회
아가페성전

(11시부터 등록 12시 점심식사
1시 정기총회)

| 참석대상 |

사모회 임원 및 각 지방회장사모
전국사모회 회원

고문 최혜선
다락방교회
고문 김광숙
은혜와진리교회
증경회장 김양란
안디옥교회
증경회장 차경애
진주은평교회
증경회장신동신
청신교회
직전회장 차추련
안동성곡교회
회장 한정은
가평순복음교회
수석부회장 윤금자
목양제일교회

1부회장 한옥현
광양은혜와진리교회
2부회장 박경미
순복음승리교회
총무 김귀순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신승철
순복음제일교회
부서기 김세희
괴산순복음교회
회계 신명희
부강순복음교회
부회계 김병희
은혜와승리교회
재무 김숙향
안성평강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연합회 회장 한정은 · 총무 김귀순 (010-8973-4250)

한기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에 장학금

박 원장 “꿈나무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 드린다”말해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5월 3일(목) 오전 11시 서울 상동동 사회복지법인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를 방문해 지원정착금 100만원과 아기용품(저귀 물티슈) 등 2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다.

한기연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여장 호현 총회장 김효중 목사,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를 비롯한 여성위원회 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아기용품 전달식은 여성서 서기 공선영전도사의 사회로 김효중 목사가 기도하고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후5:17) 제하의 설교, 김옥자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와 위원장 김옥자 목사가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에게 정착금 100만원과 아기저귀와 아기용품 등 2백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어 박미자 원장이 인사하고 이동석 목사의 축도로 예배와 전달식을 마쳤다.

대표회장 이동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누구나 실패했던 과거에 얽매어 살면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으나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면서 “지고 변명을 말하지 말고 이겨내 간증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에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자는 취지로 미혼모자 공동생활 시설을 방문하게 하신 하나님



께 감사 드린다”며 “이곳에서 생활하는 미혼모자가 불우한 환경을 딛고 일어나 어엿한 사회의 일원으로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꿈나무 원장 박미자 권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기연이 벌써 4년째 가정의 달을 맞아 미혼 모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린다”면서 “이곳에서 생활하는 엄마와 아이들이 점차 사회로 한발 더 다가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원장은 또 “미혼 엄마들이 2명의 삶이 시작되는 꿈나무에서 또 다른 나를 발견하고, 아기의 키가 자라듯 엄마들의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며 큰 꿈을 품

고 희망을 찾아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 꿈나무 가족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며, 이들을 색안경을 끼고 보지 말고 이해하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름다운 사회가 오기를 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꿈나무’는 미혼모들이 입소해 2년 동안 가정적인 거주공간에서 건강한 아동 양육과 심리적 안정, 경제적 자립지원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기연 여성위원회는 미혼 엄마와 아기의 안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꿈나무’에 4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아기용품과 지원정착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바탕 사랑 실현

예총연 제13회 춘계수련회, ‘먼저 여호와께 구하라’ 주제로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강영희 목사, 사무총장 방정웅 목사)는 2018년 제13회 춘계수련회를 지난 5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속초 영랑호 리조트에서 갖고, 하나님의 창조신앙에 바탕을 둔 정의와 평화, 사랑, 합치를 이 땅에서 실현 할 것을 다짐했다.

‘먼저 여호와께 구하라’란 주제로 열린 이 수련회는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합치, 인간과 자연의 화해 등 하나님의 창조신앙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서 감당해야 할 선교적과제를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또한 이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긴박하게 돌아가는 나라와 민족의 구원과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질 것을 간구했다.

수련회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김재환 목사의 사회로 우정은 목사의 기도, 강영희 목사의 설교, 이명숙 목사를 비롯한 최현자 목사, 김한빛 목사, 하예선 목사의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목회자 △예총연과 26개 총회 및 3개 단체 △세계선교를 위한 특별기도, 방정웅 목사의 광고, 유영섭 목사의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강영희 목사는 ‘먼저 여호와께 구하라’란 주제 설교

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구할 것인가? 해방이후 분단의 70년은 민족의 아픔이며, 분열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분명한 것은 통일도, 평화도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정진해야 한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나라를 구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 우뚝 서게 될 것으로 믿는다.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들은 거짓과 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마다 열리는 이 세미나는 성서에 나타난 말씀을 오늘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어떻게 증거하고 실천해,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를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열린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이번 세미나도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를 갖는다.

한편 이 수련회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창조신앙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 ‘인간과 자연과의 화해’, 분단의 상황에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 등을 위해서 한목소리로 기도했다.

제3회 한국기독교단편영화제

제3회 한국기독교단편영화제(KSCFF)가 오는 5월 26일(토) 신촌의 필름포럼에서 개최한다.

한국에서 기독교영화를 제작, 배급하고 있는 파이오니아21(김상철 선교사, 감독)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KSCFF는 올해 출품된 총 16편 중 4편이 최종 선정되어 본선 경쟁을 한다.

시상은 대상, 우수상, 파이오니아21 단편상으로 구분

된다.

최종 본선에 오른 작품은 들꽃(김신영 감독), 르방쉬-죽음의 무도(최명수 감독), 공개자살방송(진요한 감독), 어린이(임동의 감독)이다. 그리고 특별상영으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박준형 감독)이 상영된다.

영화제 관련 문의는 파이오니아21 (070-7886-369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 선정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8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5월 8일 밝혔다.

2013년 처음 시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공도서관을 거점으로 다양한 인문·문화프로그램을 기획해 제공함으로써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390개 도서관이 선정됐으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은 청소년이상 양행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의의 회복과 자유로워 읽는 인문학’이라는 함께 읽기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문화정보관장 김동철 교수는 사업기간은 오는 6월부터 10월까지이며, 2년 연속 선정되어 시행하는 만큼 대학 도서관이 보유한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은 양행군 내 청소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공고 예정이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지하생과 양행군민

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031-770-7747)으로 문의하면 된다.



www.dkfh.kr

산청한방가족호텔이 지리산을 품다!

우리나라의 영산인 지리산 자락의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에 위치한 고품격 가족호텔입니다. 저희 호텔에서는 산, 숲, 계곡 그리고 세계전통의약엑스포 테마가 있어 더욱 즐거운 가족호텔.

전통한방, 기, 명상 등의 체험과 천혜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청의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약선 음식을 통해 잡힌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몸과 마음의 Healing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이상의 힘을 모아 한분 한분의 고객만족을 위하여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객님을 모시겠습니다.

For your Healthy Life



필봉동/왕산동(스탠다드A,B/온돌, 단체룸)



허준동(원룸/투룸)

예약문의 055)972-7000

52229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 479번길 43

2018년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

한국창조과학회(회장 한윤봉 교수)는 5월 19일(토) 경산시 대평동에 위치한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에서 '2018년 한국창조과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창조과학회는 매년 5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창조과학과 교회교육'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갖는다. "교회와 다음세대를 건강하게 세우는 한국창조과학회"가 되기 위하여,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진행되는 교회교육에 관한 내용들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전달하며 목회 현장과 섬기시는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준비한 동 학술대회에 많은 교역자, 목회자, 성도, 청소년, 학부모님들이 참여하기를 소원한다.

이어서 진행되는 세부 일정과 참여 방법은 아래와 같다.

- * 일시: 2018년 5월 19일(토) 09:30 ~ 16:40
- * 장소: 경산중앙교회 (경상북도 경산시 강변동로 358)
- * 참가등록비: 15,000원(일반인), 10,000원(청소년)
- * 참가신청: 한국창조과학회 홈페이지 (www.creation.or.kr)
- * 입금계좌: 대구은행 508-11-702787-7 (예금주: 창조과학회(이종현))

창조과학회(이종현))

- * 문의처: 한국창조과학회 (서울 본부: 02-419-6465 / desk@creation.kr)
- (대구 지부: 010-2051-0922 / www.creation21.or.kr)

창조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이땅 가운데 창조신앙 회복이 확산되길 기도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이레기독교학교 아이들, 사랑나눔 콘서트

양평군민회관서 '2018 그레이스 콘서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는 새이레기독교학교(교장 송마경) 아이들이 여러 신들을 위한 콘서트를 마련했다.

지난 5월 12일(토) 경기도 양평군민회관에서는 '새이레기독교학교 제3회 2018 GRACE 콘서트'가 열렸다.

새이레기독교학교가 주최하고 양평군청과 기술행기, 살롬카페가 후원하는 이번 콘서트는 가족과 이웃, 공동

체의 고마움을 일깨우고 세대간 화합을 도모하는 나눔의 자리가 되었다.

아이들의 콘서트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다. 역사 수업의 일환으로 시대별 노래를 배우던 것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으로 발전했고, 세대간 공감과 교육의 가치가 발견되어 새이레기독교학교의 연중행사도 자리잡았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죽음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간직했다는 약속을 안고 적당한 종교생활로 결혼을 하고 보니 시대의 사구들은 지금의 이민회를 교주로 신봉하고 있는 신천지의 모체가 되는 과천에 본부를 두고 포교를 하던 '정막성전의 교주 유재열' 이단의 공동체에서 큰 시늉이 내외가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온 가족들을 유입시켜 인생을 송두리째 전할라고 있는 상황을 구축해 놓은 상태였었다.

유재열을 어린양으로 예수님 대신 제1한 구세주로 신봉하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김수왕의 종손 가정으로 온갖 제사와 전례 종가에서 드리는 시제를 행하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결혼생활은 눈물의 세월이었고 폭염제난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기도 퇴촌감리교회라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박영수 목사의 인도로 신유전도집회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마침 유영암에 걸려 힘들어 하던 친구를 위해 처량 봉사자 집회 첫날부터 참석하였다. 그런데 첫 시간부터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말씀을 전하신 박영수 목사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위장에 통zion이 있어 고통스러운 사람 치료하셨습니다.' 라는 선포에 나는 두 손을 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당시 나는 위장이 늘 소화 불량으로 통zion이 심했고 입에서 독한 냄새가 나서 대화를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상태였었는데 선포해 주신 순간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했다.

그 집회를 계기로 온전히 새벽기도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에 올인을 하기 시작했다. 지병으로 전도용품을 구입해서 병원과 가까호호 교회근처 버스정류장, 공원, 노인정, 학교 앞에서 전도와 기도에 올인하였다. 새벽마다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영혼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였고 그 눈물의 기도는 주일 아침에 교회로 인도해 주는 열매로 맺혀졌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한없이 부족하고 작은 자였던 나의 손길을 통해 일 년에 약 300명 정도가 되는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였고, 내가 전도하러 다닐 때 옆에서 돕던 집사에게 두 번째로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평단을 나

누어 주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린다.

그 과정 중에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나의 기도예 한 달 만에 사부모님을 교회로 인도하게 하였고 3개월 만에 제사를 추도 예배로 전환해 주셨고, 장막성전 유재열 이단의 집단에서 가족들을 구축해 주셔서 건강한 교단에서 권사, 집사들이 되어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셨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퇴촌시골집회에서 성령님의 사립인 박영수 목사를 만나게 하셔서 성령님의 조명으로 기도와 전도자의 삶으로 전환하게 해주셨다. 그 후 나는 본 교회의 장로님들의 헌신으로 대불대학교 사회복자학과 과정을 통해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협성신학대학교 3학년에 편입하고 협성신학대학원을 무사히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인천 효성동에서 지구촌전도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고 계신다.

16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를 통해서 한 여류의 불멸제난 속에서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혼 구원의 한창인 영점전도는 마지막 시대의 정점으로 보이는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고 전도지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확인하였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파리타냐'의 신앙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점전도 전도를 진행하고 있는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박영수 목사를 다시 만나게 하시고 여전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음을 감사드리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지구촌 선교교회 황찬호목사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40



호프코리아 2030 '화해·부흥·통일' 대장정

복음의 대행진 2030년까지 230개 도시에서 개최

호프코리아 2030 조직위원회(대표 한인수 장로)는 지난 5월 14일(월)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해·부흥·통일'을 주제로 2030년까지 전국의 시·군·읍 230개 이상의 도시에서 복음의 대행진 행사와 부흥집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화해·부흥·통일'을 주제로 주로 토요일에 개최될 이 행사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고 한일, 한중, 남북간의 화해 등 갈라진 땅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화해의 물결이 일어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한국교회의 새로운 영적 대각성운동을 통한 부흥을 위한 대장정'을 전개할 것'이며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을 기원하는 전국순례 대행진"이라고 강조했다.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남북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통일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으며 대장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하고 이를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다.



먼저 올리는 9월부터 11월 초까지 전국의 7대 도시에서 토요일 오후 3시에 진행하게 되며 출정식과 예수대행진, 저녁집회로 이어지며 적게는 수백 명에서 많게는 수만 명까지 참석을 목표로 지난해 9월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번에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고 했다.

첫 번째 행사는 9월 8일(토) 오후 3시 수원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대장정을 시작하게 된다. 전국

230개 도시 행사에는 전국 기독교연합회는 물론 교회와 성도,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지도자, 기독교선교단체 등과 협력하여 준비되고 있으며 호프코리아 대표로는 기독교계 문화활동에 귀한 역할을 감당해온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상임회장 한인수 장로가 맡아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조직위원장에는 호프월드미션 대표 김용국 선교사가 양측을 이루어 섬기게 되었다.

개교 44주년 맞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세아를 넘어 세계를 향해 ACTS의 날갯짓은 계속된다

아세아 복음화를 위해 설립되어 세계 복음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 이하 ACTS)가 설립 44주년을 맞았다.

'신앙과 지성으로 세계를 섬기는 기독교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교육을 펼치고 있는 ACTS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을 배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선교'를 지향한다. 신앙과 학문을 겸비한 복음사역자, 국제적 소양을 지닌 선교전문가, 시대를 선도하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ACTS의 목표는 '선교지향적 글로벌 리더 양성'이라는 최종 목적을 향한다.

오직 선교를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만 존재할 따름이다.

지난 1일,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아세아연합신학

대학교 체류실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 44주년 기념감사예배가 가졌다.

김영욱 총장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 기도한 정홍호 대학원장은 "이사와 교수와 직원과 학생과 동문들이 한뜻과 한마음으로 한 소망과 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도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이 학교를 통해 이뤄가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라고 간구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치주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감기예방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개척교회(힘드신 교회)에 전도용으로 보내드립니다. 간수 잘 빠진 천일염 20,000원에 판매합니다.

20개들이 20,000원
30개들이 30,000원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교회학교 교사강습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열려

학생들의 거룩한 변화와 교회학교 부흥을 위한 사명감 충만

2018년도 교회학교 교사강습회가 5월 12일(토) 총회교육국과 은혜외전리교회 교육자료국 주관으로 올해 교회학교의 중점 교육목표인 ‘은혜’(벧후 3:18)를 주제로 은혜외전리교회 인양성전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교사들은 오전 10시 대성전에 모여 거룩한 교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에 영광 돌리며 학생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어진 여러 강의와 실습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한편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이와 함께 성경퀴즈대회 등의 다양한 순서를 통해 주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성총현 목사의 사회로 인양성전 교회학교 부장 김전두 장로의 기도에 이어진 기도에 참석하여 본

교단 교육국장 조선평 목사(대림벤엘교회 담임)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한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의 은혜’라는 제목의 설교로 교사들의 사명감을 북돋워 주었다.

개회예배를 드린 후, 오전에 아동부서의 교사들은 성경퀴즈대회에 참가하여 성경과, 성경적인 국가관과 역사관을 주제로 한 다양한 문제를 풀며 실력을 겨루었고 중고등부 교사들은 교육관에서 황수아 전도사의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성전과 부서별로 정성껏 준비해 온 음식으로 즐거운 점심식사를 한 뒤 계속해서 오후에 부서별 순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진행되었다.

아동부 교사들은 조은님 전도사의 지도와 에이레네 어린이 선교단의 시범을 통해서 새로운 찬양 울

동을 배우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각 부서별로 주요 포스트의 시연과 직접 체험을 통해 여름 성경학교에서 실시할 프로그램의 실행을 배우고 익혔다.

중고등부 교사들은 선택 특강으로 ‘잠자는 중고등부를 깨워라’ ‘시춘기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섬김’ ‘전도와 양육’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성령충만 기도회로 모여 성령충만과 교회학교의 부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전국 각 교회에서 참석한 교사들은 오늘의 시대에 교회학교 교사에게 주어진 막중한 사명을 깊이 인식하고 신령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배우고 익힌 것을 교육 현장과 여름행사에서 적극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교회학교 학생들의 신앙 성장과 부서 부흥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강습회를 마쳤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대표교문



조용목 목사
정석유원장

교단총회장



김상목 목사
총회장

지도교문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지도교문



정부용 목사
대림발원교회

부흥사회 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부흥사회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제주안음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교단산하 개교회 및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대표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직선총회장	총회장	지도교문	지도교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조용목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상목 목사 (경주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전동용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종덕 목사 (영동제일교회)	임종택 목사 (진주순복음교회)	최광덕 목사 (일신교회)	이창제 목사 (진주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김양인 목사 (현영제일교회)	김인찬 목사 (정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발원교회)	엄기철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희태 목사 (간현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전교회)	임영관 목사 (연천순복음교회)	오승욱 목사 (전안사복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실무총무	서기
황용연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병목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정석현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백영자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신종숙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서정복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기진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최정식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건수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윤혜영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바울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정광호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조선평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병목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박종열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성기찬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오세준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임형순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조은혜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양은혜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최남성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윤성수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권택전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연옥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이화숙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임영철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홍현자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조병희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정광호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명주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서범석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육보에 전도사 (은혜외전리교회)	정예스더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김남수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최승수 목사 (은혜외전리교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7457-9768
상임총무 김건수 목사 HP : 010-3698-5764

세우는 가정

임석순 목사 // 한복합 부회장, 한국종양교회 담임

천국을 세우는 가정

마 18:1-4



사도바울은 에베소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부부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로 설정함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여 선포합니다. 루터는 “가정은 지상에 있는 천국의 그림자”라고 했고, 칼빈은 “가정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작은 천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요즘에는 주변에서 아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래학자들의 견해로 2075년에는 우리나라 인구의 40프로가 줄어들고 2095년에는 절반이 줄고 이 현상이 그대로 이어지면 23백년쯤 후에는 이 나라에 한국인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 독일 유학 시절, 5백년쯤 후에는 독일에 독일인은 없어지고 터키 사람만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독일인의 최대 관심은 인구 감소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그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린이가 없는 것, 어린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왜 비극 일까요? 이 문제는 곧 현재 한국사회 가정과 교회가 가진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실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절-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17장에 걸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으로 생각했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큰자인지 주님께 여쭙아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앞섰는지 누가

가 높아지는지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린이이를 세우시고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며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뿐 아니라 19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린이가 있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실제로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도 문제이지만 어린이를 통해 천국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시각도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되어 버려서 자기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린이를 보지 못하고 어린이를 통해 천국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 천국을 보셨습니다. 과연 주님이 바라보신,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수를 셀 때 장년 남자만 계산하고 여성과 어린이는 수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어린이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이를 순수하고 순진하고 겸손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데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어린이는 아무 것도 아닌 자, 존재 자체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린이와 같이져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 세상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아닌 자,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어린이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과거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고 교회 나가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고 핍박받는 일인 시절에 한국 교회는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힘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졌습니다. 어린이를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주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힘있으신 주권자로 오시지 않고 어린이로 오셨습니다. 우리 위에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존재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 53:1-3)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우리를 천국백성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이 아니라 어린이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1프로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학문과 지혜와 경험과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던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 후 11:30)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두 번씩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았기에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삼상 24:26장) 결국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어린이이고 상대방은 기름 부음 받은 천국 백성임을 볼 수 있었던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천국인 가정도 질서와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권위를 어린이로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세우셨다면 우리 가정의 질서와 권위가 우리가 먼저 서로 어린이가 되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고백할 때,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은 천국이 세워질 때 실제 가정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 1:28)는 명령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어린이로 보내졌음을 기억하고 어린이로 살아내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 설

총회주일을 지킵시다

총회는 교회들의 교회이며, 교회와 그 생명을 같이 하는 확대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교단 내 지교회들을 결집하고 연합하게 하여 개교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총체적이고 통전적인 영역에 대한 하나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과 책무를 지는 것이다.

총회는 개교회가 할 수 없는 기능을 감당함은 물론 신학교를 운영하며 목회자를 양성하고 교육공과를 제작한다. 선교사들을 훈련하고 파송하며 지원하며 이단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게 한다.

각종 연합집회를 통해 지교회를 활성화 하고 타교단과의 연합 사업을 통해 대사회적 대정부적 사안을 취급하며 복음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야한다. 1년에 한번 총회주일을 정하고 총회주일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총회의 기능을 순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다.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에서 총회로 정성으로 모은 헌금을 보내는 일은 물론 총회주일을 통해, 교단이 하는 일을 알아보고 기도로 후원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가 결의한 사항들을 확인하고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총회주일 헌금 등 총회가 결의한 사항들은 총회 산하의 모든 교회들이

따르고 지킬 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총회주일은 총회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이고, 총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주일이고, 총회의 사업에 동참하는 주일이다. 재한지 총회를 앞두고 맞이한 총회주일은 금번 회가에서 모든 교회와 총회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어느 회기보다 많은 가시적성과들을 가져다줄 것을 감사한다.

총회주일은 교단의 정체성을 점검하면서 창립의 정신과 열정을 계승할 것을 다짐하는 날로 총회원들 모두에게 큰 의미가 되는 날이다.

신학적으로나 교역자의 질적 수준이나 권역별 질서를 유지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일사분란하게 하 나된 교단의 정체성과 앞서는 정책의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도 될 교단이다.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의 사역과 사명을 바르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교단 총회는 성경대로의 신앙을 견지하고 성령충만을 지향하는 교단으로써 한국교회의 부흥에 그 임무를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다운 지도자의 부재, 신의와 성실, 도덕성을 생명의 이라는 지도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총회주일을 맞이하여 총회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며 사회를 이끄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총회주일에 보여준 전국교회의 깊은 관심과 사랑에 우리 교단 총회는 더욱 복원의 임무 수행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다.

신뢰할 수 있는 핵 폐기 담보되어야

미·북 협상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양측이 만족감을 표시하고 서로 추겨 세우기까지 하고 있다. 백악관이 10일 미·북 회담의 최우선과제가 완전한 비핵화(핵폐기)임을 재확인한 것을 보면, 원칙은 흔들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정은이 비핵화(핵폐기)에 포괄적 합의를 한 뒤 적대시 정책 철폐와 체제 보장에 집중할 경우, 한·미 동맹을 비롯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 미군의 성격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한반도 전체 비핵화를 강조한 이면에 핵우산 중단이나 한·미 연합군 전력 약화, 한·미 동맹 약화 등이 합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동맹을 기조로 주한 미군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안보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안보

의 천병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대북 공조 강화와 한·미 동맹에 대한 약화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김정은과 폼페이오 장관 회담에 대해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관심을 보이고 정상회담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는데 높이 평가하며 만족한 합의를 봤다고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새로운 기반에서 시작하고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과시하고 있다. 두 사람 표현 모두 이례적으로 매우 낙관적이다. 우리가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 한국을 건넌 뒤 미·북 작거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어서 안 된다는 것이다.

CTS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 발족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 선교 사명 일깨워야

CTS인터내셔널은 지난 5월 9일(수) 오후 CTS빌리티미디어센터 9층에서 찬양 선교단 발족 및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내 복음 전파와 전 세계 각지에 파송된 미지립 선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캠페인 '1% 섬김의 나도 선교사'를 필두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교회 1천 만 성도 모두 기독교인으로서의 선교 사명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특별 찬양 예배' 동행을 하였다.

같은 협약에는 CTS인터내셔널 감경철 이사장

과 주대준 회장 그리고 찬양 선교사로 협약을 체결한 박지현(VOS), 함부영(마커스커뮤니티) 외 12명의 선교사들이 함께함으로 기독교 문화 운동 확산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CTS인터내셔널 박준서 사무총장은 "한국 1세대 선교사들의 은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나도 선교사 캠페인에 동참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부영(마커스커뮤니티) 선교사는 "여러분

의 작은 섬김으로 마지막 선교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며 "선교지로 직접 갈 수 없지만 '나도 선교사'의 일원이 되어 각국에 계신 선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CTS인터내셔널은 순수 선교 NGO로 주목받고 있다. 전 세계 각국에 파송된 미지립 선교사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교회 1천 만 성도가 내 수임의 1% 섬김으로 '나도 선교사'가 되기 위한 '1% 섬김의 나도 선교사' 캠페인을 앞으로도 활발하게 펼칠 예정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채원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빌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8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 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를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감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담임목사 추천서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건강진단서(HIV 포함)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가족관계증명서
- ⑨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수시 교부
- ②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③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01-04-214788(총회신학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수시 접수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ASSEMBLIES OF GOD



제67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주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로마 12:2)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67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 | |
|---------------------------|---|
| 1. 총회일자 : 2018년 5월 21일(월) | 4. 사무총회 : 5월 21일(월) 오후 2시 |
| 2. 등 록 : 5월 21일(월) 오전 11시 | 5.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 3. 개회예배 : 5월 21일(월) 오후 1시 | 6.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

2018년 4월 5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김 양 인

5월 20일(주일)을 총회주일로 지킵시다!!!

- 총 회 주 일 _ 2018년 5월 20일(5월 셋째주일)
- 대 상 _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지방회 회원교회
- 총회주일안내 _ 전국 각 교회에서 홍보 현수막 및 홍보전단, 주보 등을 활용해 교단의 성령충만한 사역 운동을 알리고 지역사회 복음화의 계기를 만드는데 활용토록 함.
- 헌 금 구 분 _ 특별헌금을 교회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80331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http://www.aogk.org>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email:aogk@aogk.org

담임목사 청빙 공고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 2018년 4월 기준 만 40~55세
- 학력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및 신학대학 졸업
(교육부 인가. 단, 성공적인 목회활동 하시는 분중 예외)
- 경력 : 목사 안수 후 목회경력 10년 이상 경력자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기타 : 초교파 목사지원 가능

2. 1차 제출서류

- 청빙지원서 각 1부. 사진부착(본인 및 사모) 최근 3개월이내 촬영
(소정양식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www.ccfgc.or.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 목회계획서 : 목회동기, 목회철학, 비전, 바람직한 목회자 및 교회상
(A4용지 5매이내)
- 자기소개서 및 가족소개서 (성장배경 및 가족의 신앙이력)
-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교단소속증명서,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3. 교회소개 : 청주중앙순복음교회

홈페이지 www.ccfgc.or.kr 참조하세요.

4. 제출기한 : 2018년 4월 9일 ~ 5월 30일까지

(청빙서류접수는 메일과 등기우편으로만 접수가능)
(등기우편은 봉투에 담임목사 청빙 서류 재증 기재
5월 30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5. 제출처 :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85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청빙위원회 위원장

- e-mail : ccfgc9900@naver.com
- 문의 : 문의사항은 메일로만 가능하며 답변도 메일로만 드립니다.
- 제출된 서류는 청빙건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반환하지 않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청주 중앙순복음교회